

문화를 활용한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강신겸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창조적 농어촌 발전의 시대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시장경제와 개방화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 ‘농업발전’이 곧 ‘농촌발전’이며, ‘농촌활성화’는 곧 ‘농가소득 증대’라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우리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은 새로운 시장(market)과 가치(value)를 찾아 나설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최근 창조적 시대, 문화의 시대를 맞아 농어촌공간은 농수산물 생산 등 농어촌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휴양 공간이자 문화공간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면서 생활환경의 편의를 높이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으로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를 접목하여 농어촌을 발전시키려는 창조적 농어촌 발전전략은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자원의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창조성을 북돋우는 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관광객과 인재 및 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문화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예술, 문화, 휴식이 결합된 지역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주민 스스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가꾸어가는 것이다.

창조적 농어촌 발전의 목표는 창조적 감수성이 풍부한 마을, 창조적 아이디어

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창조적인 지역 가꾸기는 물리적 공간 정비에서 벗어나 산업, 공간, 인재,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창조적 지역개발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농어촌으로 가꾸어간다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토목적 개발에 치중하던 농어촌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문화 마인드를 높이고 지역의 자원과 사람, 생활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를 접목해 차별화된 매력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문화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발전

문화(文化, culture)는 좁게는 예술로서의 문화(art)에 한정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생활로서의 문화(life), 그리고 생활이 축적된 결과인 역사로서의 문화(heritage)까지 포함하는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문화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농어촌의 물리적 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자 과정이며,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창조하는 행위다. 문화는 농어촌 지역발전의 수단이자 목표로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문화를 활용한 농어촌 발전전략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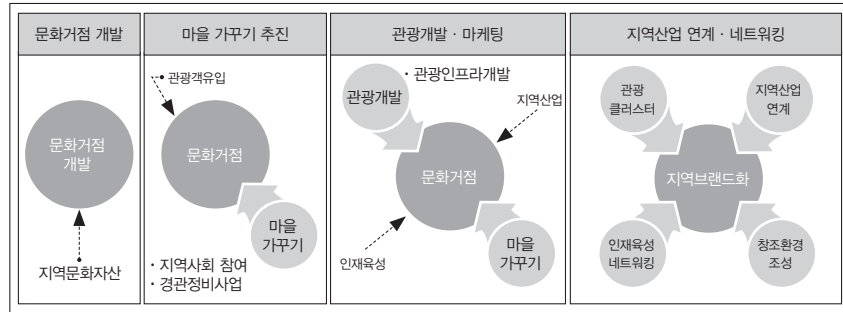
첫째, 잊혀져가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미래

핵심 콘텐츠로 재발견함으로써 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고 미래세대와 소통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문화자산은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을 드러냄으로써 고객 유치의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한다. 둘째, 그동안 토목적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하던 농어촌 개발의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 개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셋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결속력 증대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농어촌지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문화의 창조성은 농어촌지역 가꾸기에 있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역발상을 가능하게 한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것은 본래 소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소재로서 기발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낙후된 농어촌도 작지만 특색 있는 건물과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독특한 풍경이 창조적인 인재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일련의 과정과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인 일본 나가노현(長野県) 오부세마치(小布施町)는 한 미술가와의 인연으로 1970년대에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관광 중심지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 민예품점이 들어서면서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축적되었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지역주민과 관광 경영자 스스로 문화마인드를 높여 품

〈그림 1〉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 농어촌 지역발전 전략



자료: 강신겸, 2010,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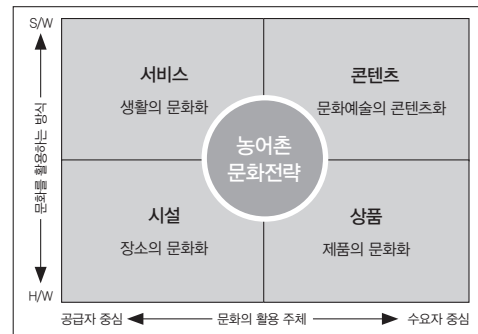
격과 세련미, 창조력을 갖추어 다양성과 차별성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지역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공과 체험 등 6차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을 견인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가,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창조적 역량을 높여가게 되었다.

문화를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문화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농어촌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은 문화를 활용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소의 문화화'다. 문화를 접목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공간인 동시에 충실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산·생활공간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공간을 문화적으로 가꾸어가도록 한다. 농촌 지역 또한 얼마나 창조적인 공간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관광객 유치, 농특산물 판매 등 지속가능한 마을 가꾸기 성과가 좌우된다. 전북 완주군은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2013년 6월 5일에 삼례문화예술촌 '삼삼에이미'를 열었다. 1920년대에 지은 창고 5동과 1970~1980년대에 지은 창고 2동으로 구성된 삼례양곡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

〈그림 2〉 문화를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전략



했다. 예술가들은 공간의 변신을 꾀하되, 건물 안팎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근현대예술이 한자리에 빛날 수 있게 배려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둘째, '제품의 문화화'다. 브랜드에 의한 경쟁 시대에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에도 문화를 담아야 한다. 특산품에 문화를 접목하여 독특한 연상과 이미지를 반영하며, 브랜드 연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행, 문화이벤트, 축제 등 소비자와 관계를 구축하여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전남 광양의 청매실 농원은 대한민국 문화인들의 사랑방으로 유명하다. 매실시장을 개척하면서 다양한 매실제품에 문화를 접목했고, 경영자 자신이 문화브랜드이자 휴먼드라마의 주인공, 건강 전도사로서 매실을 문화상품으로 알리고 있다. 경남 하동의 매암차 박물관은 크지는 않지만 유서 깊은 다원(茶園)이다. 최고급 홍차를 생산하며 유명 작가의 그림을 라벨로 제작해 품격을 높였다.

셋째, '생활의 문화화'다. 문화를 접목함으로써 풍요로운 일상생활(lifestyle)을 누리게 된다. 또한 품격 있는 문화생활은 '의衣, 食食, 住住, 行行, 락樂' 등 농어촌의 생활문화에 꿈과 감성을 담아 농어촌관광 즉, 농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전북 완주 비비정마을은 주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과 생활문화를 체험으로 개발해 도시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종택(宗宅)인 지례 예술촌은 제사, 음식 등 유교문화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전통숙박시설로 알려져 있다.

넷째, '문화예술의 콘텐츠화'다. 농어촌을 문화예술의 무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농어촌의

자연환경에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면 금상첨화다.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조각, 도예 등 장르별로 접목하여 이벤트, 축제, 공연, 전시 등으로 상품화할 수도 있다. 농어촌마을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고 문화활동 및 창작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표선면의 가시리마을은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 여느 농어촌마을과 같이 침체되어 있었으나,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다. 2010년 문을 연 '창작지원센터'는 예술인들에게 주거공간과 활동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창작활동을 보장해주고, 예술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창작 레지던시(residency)를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문화로 소통하면서 조랑말 박물관을 건립하고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문화를 접목한 창조적인 농어촌 가꾸기 전략은 문화의 힘으로 농어촌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면서 동시에 농어촌 그 자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활성화하려는 노력이다.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마을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주민과 주민 간 관계(relationship)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 증대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문화는 농어촌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지역 공공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

〈그림 3〉 농어촌 마을 활성화 사례



출처: <http://www.jeugasiri.net>

택을 제공하며, 지역주민과 지역 예술작가 간의 결연을 통해 창의적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지역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촉진,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예술 네트워크 형성, 지역 예술작가들의 참여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에 문화전략이 효과적으로 접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리적 문화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value)’에 주목한 농어촌 문화진흥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의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사업 지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 농어촌 가꾸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풍부해져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문화마인드와 역량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어촌관광 경영자(주민)들은 스스로 ‘문화 CEO’의 감성 리더십을 발휘해 문화적 관심과 소양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편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 스스로 생활이 즐겁고 풍요로우면 관광객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맺음말

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자원의 가치를 높여 창조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관광객과 인재,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 농어촌 가꾸기에 대한 개념화와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문화를 활용한 농촌 가꾸기의 첫 단계는 지역에 있는 사람과 자원,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콘셉트로서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창조적인 공간과 문화 콘텐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조건이며, 문화예술은 지역의 창조성을 북돋우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소재다.

둘째, 문화와 관광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이른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1, 2차산업에 관광과 디자인, 문화라는 3차산업적 요소를 접목하는 6차산업화 전략으로 이때 문화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셋째, 창조적인 생각과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폭넓은 지역주민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다양한 배경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주민 교육으로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이다. 단체장과 주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부문 간 벽을 뛰어넘어 문화와 관광, 농업, 산업, 도시계획 등을 융복합하는 통합적인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인 농어촌 가꾸기 전략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과 환경정비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경관정비,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인재육성과 주민참여 등 지역발전전략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는 농어촌 지역발전의 수단이자 목표로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

참고문헌

- 강신겸. 2007. 농촌관광. 서울 : 대왕사.
- _____. 2010. “문화관광을 통한 창조적 지역가꾸기 전략”. 문화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pp85-106.
- _____. 2012. “커뮤니티 중심의 섬관광 개발”. 경남발전 제121호. pp24-34.